

왜 미군 위안부는 잊혀져야 했는가?

- 기지촌의 로컬리티와 기억의 정치

백일순**

| 국문초록 |

미군 위안부에 대한 기억에 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미군 기지촌이 가장 성행했던 파주 용주골을 사례로 기지촌이 가진 공간적 특성과 로컬리티가 미군 위안부에 대한 기억을 정형화하고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파주 용주골이라는 공간 속에서, 미군과 그를 둘러싼 관련 행위자들은 미군 위안부들을 공간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을 통해 착취와 폭력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공간에서도 미군 위안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으로 인하여 기지촌의 로컬리티는 기억의 정치가 시도되기 쉽지 않은 구조로 고착화되었고 미군 위안부 역시 여전히 잊혀진 존재로 남겨져 있다.

주요어: 기지촌, 기억의 공간, 재현의 정치, 파주 용주골, 미군 위안부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3A2066514).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thinki01@snu.ac.kr)

| 차례 |

1. 기억되지 못하는 그녀들, 미군 위안부
2. 미군 위안부, 기억과 공간의 정치
3. 용주골의 공간과 잊혀진 사람들: 통제의 공간 클럽과 숙소
4. 용주골의 거리와 시간의 흔재: 일상과 욕망이 뒤섞인 공간
5. 잊혀지는 것들을 제대로 기억하기

1. 기억되지 못 하는 그녀들, 미군 위안부¹⁾

2020년 6월 24일, 제144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²⁾는 소녀상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다. 1992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를 증언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진 수요집회는 평화정의에 대한 연대와 투쟁의 상징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의 박탈은 집회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²⁾

수요집회의 공간성과 소녀상이 갖는 재현의 힘은 억압된 기억을 불러일으켜 대중들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모으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차원에서 위안부 운동에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³⁾ 그 중에서도 소녀상은 위안부의 상징 그 이상을 넘어 오랫동안 배제, 은폐, 왜곡되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무형의 기억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저항의 응집력과 공감대를 확산시킨 구심

1)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을 일반적으로 '미군 위안부' 혹은 '기지촌 여성'이라고 불려왔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의 대상은 1960-80년대 미군 대상 기지촌과 관련된 행위자들로, 현재의 윤락 여성들과 구별을 하고 미군과 관련된 논의로 국한시키고자 미군 위안부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2) 28년 만에 소녀상 없는 수요집회, 한겨레, 2020년 6월 24일 기사

3) 윤지환,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형성된 위안부 기억의 경관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4권 1호, 2019.

점이 되었다.⁴⁾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수요시위, 소녀상 및 평화비 건립 등을 중심으로 이를 공감하는 청중의 연대와 이해가 형성되고 확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트라우마 피해자와 청중 간의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⁵⁾

반면에 미군 위안부들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폭력의 자행과 미군과의 불평등한 관계가 야기한 일방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위안부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처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공감과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2018년 법원은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지, 목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 정당화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위안부 사안만큼 주목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일본 위안부와 동일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미군 위안부 스스로 선택했다는 비난들이 커질 뿐이었다.

미군 위안부의 기억과 재현에 대한 논의가 일본 위안부의 소녀상과 수요 집회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기존의 기지촌에 대한 연구가 기지촌 여성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⁶⁾ 기지촌의 문제가 곧 여성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어 기지촌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기지촌을 미군과 달리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고 그것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기지촌이 가진 특유의 로컬리티와 그것을 만들어낸 행위자들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드문 현실이다.

서울 청량리⁷⁾, 춘천⁸⁾, 송탄⁹⁾, 대전¹⁰⁾, 원주¹¹⁾ 등에 위치한 기지촌의 공

4) 송진원·안병학,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나타난 시각 문화의 상징성과 사회적 기억의 확산」, 『기초조형학연구』 20권 5호, 2019.

5) 이나영, 「일본군위안부운동 다시 보기-문화적 트라우마 극복과 공감된 청중의 확산」, 『사회와 역사』 115권, 2017.

6) 김미덕, 「미군 캠프타운 한국 여성에 대한 한 민족지적 연구: 일과 정체성」, 『아태연구』 21권 3호, 2014.

7) 오유석, 「동대문 밖 유곽-‘청량리 588’공간 구성의 역사와 변화」, 『서울학연구』 36권, 2009.

8) 정충실, 「춘천, 기지촌: 1960, 70년대 캠프페이지와의 관계 속에 형성된 주민의 삶과 문

간들은 미군과 국가의 의도와 제약에 따라 확대와 축소, 이동이 이루어졌고 현재에 이르러 쇠퇴와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다. 공간적 관점에서 기지촌은 역사와 사회적 구성물¹²⁾이며,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존재하여 단일한 공간으로 볼 수 없으며¹³⁾ 도시의 욕망과 이를 둘러싼 착취와 불합리가 교차하는 혼종된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¹⁴⁾.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적 관점에서 기지촌의 기억을 재해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미군 위안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군 기지촌이 접근 가능할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공간적 측면에서 기지촌을 읽는다는 것은 기지촌이 단지 성(性)으로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생략되어 있는 많은 행위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지촌 내, 외부에서 발생한 피해나 갈등과 같은 감정적 해석에서 보다 담백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적 관점의 유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를 위해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를 연구 지역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용주골은 경기 북부에 위치했던 미군 기지촌 중 최대 규모였으며, 수치로 따져보았을 때 파주시 38개 기지촌에서 생활 하였던 약 천 여명의 위안부 여성 중 8백 명이 이곳에서 활동하였다고 전해진다.¹⁵⁾ 마을 전체가 기지촌이었던 만큼 골목과 주택을 포함한 모든 곳들이 미군과 그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화], 『한국학연구』 68권, 2019.

9) 김희식·이인휘·장용혁, 「송탄 기지촌의 공간변화: 1952-2018년」, 『역사와경계』 109권, 2018.

10) 김희식, 손일란, 「대전 매춘공간의 형성과 변화」, 『역사와경계』 93권, 2014.

11) 김대범, 「구술로 본 강원도 원주의 도시지역- 군사문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82권, 2020.

12) 오유석, 2009, 앞의 글.

13) 정충실, 2019, 앞의 글.

14) 김희식 외, 2014, 앞의 글.

15) 강수영·백일순·이승욱, 「미군 기지촌, 용주골의 역사적 변화: 사회경제적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5권 2호, 2020.

운영되고 있는 기지촌과는 달리 1980년대 이후 미군 철수, 관련 행위자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 개발이슈의 부재로 기지촌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공간의 배치와 건축물의 특성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여 기지촌의 로컬리티를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위안부가 주로 활동하였던 골목을 비롯하여 클럽, 숙소, 목욕탕 등의 공간을 실측하여 이러한 공간들의 형태와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미군 위안부의 일상을 기반으로 하는 기지촌의 공간적 의미와 구조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일 여 년 동안 2-3주 간격으로 현지 방문하였으며,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마을 구성원과 기타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실시¹⁶⁾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용주골에 거주 경험이 있거나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기억들을 자세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기지촌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삶과 기억을 복원하고 공간적 차원에서 그들의 행위와 의미를 탐색하는 방식을 통해, 미군 위안부들의 일상을 바라본 관찰자이자 기지촌을 움직이는 행위자로서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이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더불어 구체적인 공간 자료 획득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연풍리 일대를 실측하였으며, 현장 개방이 가능한 건물 3곳(미군 클럽과 위안부 숙소, 위안부가 주로 이용한 목욕탕)을 집중 조사하였다. 해당 공간들은 과거 미군 위안부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삶을 직, 간접적으로 추정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찍은 사진, 당시의 상황을 기술한 신문 기사와 2차 자료 등을 통해 인터뷰 응답 내용의 객관성과 자료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16)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사전에 촬영된 현장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된 것도 있음을 밝힌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구분	특성	성별/연령	인터뷰 일시
A	연풍리 전 거주자	남/70대	2017. 12.13.
B	연풍리 이장	남/50대	2019. 01.09.
C	파주 지역활동가	남/60대	2018. 12.05.
D	연풍리 거주자	여/50대	2019. 07.16.
E	연풍리 부녀회장	여/50대	2019. 01.09.
F	연풍리 개발위원장	남/60대	2019. 07.11.
G	연풍리 거주자	여/60대	2018. 12.05.
H	연풍리 거주자	남/70대	2019. 09.26.
I	파주 시민단체관계자	남/60대	2018. 02.19.

2. 미군 위안부, 기억과 공간의 정치

미군 위안부를 떠올리는 방식에 대해 시작점은 다르겠지만, 미군정 시기의 미군의 주둔과 그로 인하여 몰려든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들로 귀결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기지촌은 미군과 한국인들 사이의 관계가 응축적으로 드러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달러와 px물품들이 암암리 오고가는 시장 이면에, 고향을 떠난 여자들과 그들을 앞세워 돈을 세는 포주들, 돈으로 하룻밤 유희를 사는 미군들의 욕정과 불안이 기지촌 골목골목에 뒤섞여 있었다. 이처럼 그들을 회상하는 방식은 단편적이고, 일부에 불과하지만 기지촌의 전면에 둘러싸여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다.

기억 한다는 행위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이야기로 복원되는 행위이자 과거와 현재의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¹⁷⁾ 기억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현재’에 기억하는 자와 교류하며 공적인 것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따라

서 기억의 내용과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사회적 생산이 중요해진다.¹⁸⁾ 예를 들어, 관계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구술사, 영화, 기념물 등의 재현은 역사적 사실의 부동성이나 단일한 내러티브로 다루어지기보다 복잡한 기억들이 뒤얽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¹⁹⁾ 기억은 개인과 집단이 그 시대의 사회 환경과 조응하며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적인 기억으로 전환될 때, 사회문화적 형태의 집단 기억으로 귀속된다.²⁰⁾

기억의 정치화는 이러한 공적이고 집단화되는 과정 속에서 선택, 배제, 수정된다. 형성된 기억들은 정치화되지 못한 기억들과 끊임없이 경합하며, 대항-기억들을 생산하면서 다른 행위자들을 수용, 배제하면서 살아있는 정동체로 작용한다.²¹⁾ 개인의 기억이 집단의 기억으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정 투쟁’이 수반된다. 예를 들어, 이현재²²⁾는 성노동자들의 인정 투쟁이 그들과 그들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도덕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몸의 도구화로 인해 그들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부인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담론 역시 국가적이고 가부장적인 관점과 매춘 혐오에서 벗어나 성노동에 대한 경험과 차이의 정치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²³⁾

17) 태혜숙, 「한국인 군위안부 기억의 ‘역사화’를 위하여」, 『문화과학』 40권, 2004; Meyer, E. “Memory and politics,” in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2008. pp.173-180; 구난희, 「캐나다의 어두운 과거사 기억하기-인디안 기숙학교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54권, 2020.

18) Olick, J. K. “Collective memory: A memoir and prospect,” *Memory studies*, Vol.1, No.1, 2008.

19) 권은선, 「증언, 트라우마, 서사-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의 일본군 ‘위안부’ 영화」, 『아시아영화연구』 12권 2호, 2019.

20) 장세룡, 「로컬 기억과 기억의 정치-폴란드 에드바르네 유대인 학살 기억의 사례」, 『대구사학』 98권, 2010; Gensburger, S. “Halbwachs’ studies in collective memory: A founding text for contemporary ‘memory studies’?,” *Journal of Classical Sociology*, Vol.16 No.4, 2016.

21) 신진숙, 「탄광서사를 통해 본 산업 폐허와 기억의 정치」, 『문화역사지리』 30권, 2018.

22) 이현재, 「성노동자들의 인정투쟁과 윤리적 지평의 확장: 민주성노동자연대의 거주생존권/노동권 주장에 대한 인정 이론적 담론화」, 『한국여성학』, 25권 2호, 2009.

따라서 인정의 정치는 기존의 관행,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저항이며, 여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권력의 형태로 결정된다는 고정관념의 탈피와 동시에 그 구조 속에 내재된 불평등을 재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성취 과정을 경유하게 된다. 피쳐(Pitcher)²⁴는 사회주의의 종말을 경험한 모잠비크의 상황에 주목하면서 기억에 대한 다원주의가 다수의 목소리를 드러내는데 기여하였지만, 특정 주체들의 조직화된 기억 삭제 혹은 왜곡 전략을 통해 권력의 불평등을 확대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정의 정치가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이 상황²⁵은 인정의 정치가 가지는 특유의 정체성의 정치와의 동일시 경향을 비판하고 갈등과 폭력을 야기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정의 요구라는 것은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충분히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 집단 구성원들의 지위 획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동등한 참여, 재분배 등을 공통 규범으로 삼고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동료로서 사회적 삶의 변화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정의 정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집단화된 기억으로 인정받는 과정 속에서 기억의 정치가 실현된다.²⁶ 무엇을 기억하고, 망각해야할지의 선택에서부터 기억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기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모두를 포함한 인정의 정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상과 반목을 동력삼아 그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기억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는 인과 관계도, 선후 관계도 아닌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결과물이자 과정이다.²⁷ 그러나 기억이

23) 김주희,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가부장성을 넘어서는 방법: 다큐멘터리 <레드마리아 2>의 탈정치성 비판」, 『여성학논집』 34권 2호, 2017.

24) Pitcher, M. A. "Forgetting from above and memory from below: Strategies of legitimation and struggle in postsocialist Mozambique," *Africa*, 2006.

25) 이상환, 「인정의 정치와 사회 정의」, 『철학연구』 107권, 2008.

26) De Jorio, R. "Politics of remembering and forgetting: the struggle over colonial monuments in Mali," *Africa Today*, 2006.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으로 공고히 되기 위해서는 재현의 정치에 연결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억에 대한 서술과 재현은 국가와 공적인 주체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왔다.²⁸⁾ 그러나 이러한 편향된 서술 주체로 인하여 기억과 관련된 공간 논의에서 지나치게 국가와 민족주의만이 중요시되어 왔으며 국가 이외의 로컬, 공동체, 개인 등 다양한 스케일 간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지은²⁹⁾은 박물관 등과 같은 기념공간의 장소성을 물신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조각나고 지워진 이미지로 남겨진 기억들이 재구성될 때, 본래적 정치적 의도들이 은폐되고 미학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어 상징 경제로 치환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재현의 정치로서 기념물(혹은 기념관)은 기억의 정치와 상호 영향력을 가진다. 기억의 가시화를 통해 개인의 경험이 집합적 경험으로 전환되어 또 다른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상으로 기능한다. 또한 대치되는 기억들을 병치시켜 선택된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을 재확인시키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³⁰⁾ 예를 들어, 위안부와 관련된 재현의 정치는 다양한 미디어를 비롯하여 주로 수요시위, 소녀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송진원³¹⁾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현 시대의 해석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들과 시민 운동가들의 저항 운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상징물로서 '소녀상'이 기억의 산물이었음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이 유기적 연결체로써 기억-재현의 정치는 강력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며,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에 따라 재구조화된다.

27) Erll, A. *Memory in culture*, Palgrave Macmillan, 2011.

28) Nora, P.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Vol.26, 1989.

29) 한지은, 「탈식민주의 도시 상하이에서 장소기억의 경합」, 『문화역사지리』 20권, 2008.

30) 한성훈, 「기념물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집단 정체성-거창사건의 위령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8권, 2008.

31) 송진원 외, 2019, 앞의 글.

위안부와 연결된 상징들은 위안부들의 삶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정당성 확보와 함께 인정 투쟁으로 획득된 재현의 정치가 실현되어 그것 자체로의 또 다른 기억의 정치를 만들어냈다. 위안부와 관련된 특정 기억들이 선택되어지고 삭제되는 사건들이 증첩되는 과정에서 재구조화된 정체성(들)이 소녀상이라는 재현물에 녹아들게 된 것이다.³²⁾

특정한 상징물뿐만 아니라 공간의 재현 역시 개인과 집단의 기억과 함께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³³⁾ 수요 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은 저항의 공간이자 연대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첫 시작은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지만 많은 이들이 그 기억에 공감하고 아파면서 위로와 회복의 목소리를 내는 공간으로 확장되었다.³⁴⁾ 수요 집회의 공간은 집회가 종료되면 모든 집회의 도구와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사라지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그 자리에 머무르기에 집회가 열리지 않는 다른 날에도 상징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소녀상과 수요집회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억-인정-재현의 정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써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호 관계성 속에서 기억과 인정, 재현은 개인과 집단이 지향하는 기억-그 기억의 방향이 다른 집단에게 동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인정과 재현 없이 기억이 유지되기 어렵고, 기억이 되지 않는 것들의 재현은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³⁵⁾ 따라서 기억의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

32) Schwabe, S. "Paradoxes of Erasure: Palestinian Memory and the Politics of Forgetting in Post-Dictatorship Chile," *Interventions*, Vol.20, No.5, 2018.; 윤창로, 「관주도 기념의 정치와 새마을운동기념관-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26권, 2020.

33) Esposito, E. "Social forgetting: A systems-theory approach," in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2008, pp.181~190.

34) 이나영, 「글/로컬 젠더질서와 한반도 여성의 몸: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양공주」, 『동방학지』 161권, 2013.

35) 김명희, 「일본군 '위안부'운동과 시인(recognition)의 정치: 한국의 사회적 기억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4권 3호, 2018.

원들 내부에서 추동되는 일종의 인정의 정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을, 누구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정의 당위성이 합의되었을 때-사실은 '인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거칠게 다루어질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재현의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상의 재현들이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은 다시 한 번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재정립된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의 소녀상이 인정과 재현의 정치를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본다면, 그것의 상징성 이면에서는 기억의 정치를 수행하기 위한 무수한 갈등과 조정들이 누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그렇다면, 미군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비교하였을 때, 서로 다르게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국가와 남성에게 의한 폭력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의 형상은 매우 다르다. 미군 위안부의 경우, 기억에 대한 집단적인 요구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누구의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왜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황 속에서, 미군 위안부들은 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한 것에서부터 기지촌에서의 일상과 그 이후의 일들까지 구체적으로 조명된 바가 없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미군 위안부들은 주로 문학³⁷⁾이나 영화·영상³⁸⁾ 등을 통해 재현되는 모습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버려지고 오염된 자 혹은 전통과 가부장제를 깨뜨리는 자³⁹⁾들로 상징화되어 왔다. 또한 미

36) 서승희,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과 재현의 정치-소설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2권, 2016.

37) 정재림, 「1950-60년대 소설의 '양공주-누이' 표상과 오염의 상상력」, 『비평문학』 46권, 2012.; 오창은, 「1970년대 초 한국소설의 미군기지(촌) 재현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권, 2019.

38) 김윤지, 「도구화된 타자. 기지촌 여성과 한국영화-한국전쟁 이후 기지촌 여성을 다룬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교육연구』 15권, 2013.; 정민아, 「미군 기지촌을 다루는 독립다큐멘터리의 담론 변화」, 『인문사회』 21권 11권 4호, 2020.

군 위안부의 육체와 국가 혹은 민족주의를 연결시켜 불안정했던 한국 사회와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선택한 그녀들의 삶을 분석하는 연구⁴⁰⁾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기지촌에서 일을 했던 경험들을 구술로 옮긴 연구들⁴¹⁾이 발간되어 미군 위안부들의 실상과 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졌지만, 후속 실천들로 연결되지 못 하였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미군 위안부에 대한 기억의 정치가 작동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이후에 따라오는 인정과 재현의 정치 역시 실현되기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양공주’로 대변되는 미군 위안부의 삶은 잊혀짐의 정치(Politics of forgetting)로 설명할 수 있다. 잊혀짐의 정치로 잊혀지는 미군 위안부와 같은 존재들은 수동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타인’으로 간주된다.⁴²⁾ 이러한 사실조차 떠올리게 하지 않는 잊혀짐의 논리는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암묵적이고, 점진적이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잊혀진 존재들은 특정 장소에 위치한 사람들의 이익과 지분을 대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공간의 독점과 약자의 강등”에 바탕을 둔 명시적이고 의식적이며 전략적인 선택 과정 속에서 소외된다.⁴³⁾

39)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권 2호, 2006.; 이나영,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성별화된 민족주의, 재현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24권 3호, 2008.

40) 황영주, 「파편화된 기억과 완충지대로서의 식민지화 된 여성의 몸: 미군기지 양공주 다시보기」, 『비교한국학』 5권, 1999.; 이평진, 「1970년대 소설의 ‘생체정치’와 ‘재생산된’ 신체 연구」, 『어문학』 140권, 2018.

41) 김연자,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 김정자, 새 울터,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미군위안부 기지촌여성의 최초의 증언록)」, 한울아카데미, 2013.; 차미령, 「여성 서사 속 기지(촌) 성매매 여성의 기억과 재현: 강신재·박완서·강석경 소설과 김정자 증언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8권, 2019.

42) Nagar, R., Lawson, V., McDowell, L., and Hanson, S. "Locating globalization: feminist (re) readings of the subjects and spaces of globalization," *Economic Geography*, Vol.78, No.3, 2002.

코헨(Cohen)⁴⁴⁾은 이를 조직화된 망각(organized forgetting)이라고 칭하며, 집단 기억에 대한 고의적인 삭제 혹은 배제가 특정집단 혹은 국가의 주도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군 위안부들이 국가의 명령 아래 미군의 요구에 응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미군 위안부들의 주장은 묵살되었고 그들의 선택 역시 자발적인 성매매로 치부되었다. 그들에 대한 비난의 근거에는 ‘미군 위안부’의 존재가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숨겨져 왔던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법적 소송을 통해 미군 위안부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기억에 대한 투쟁을 공식화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함을 획득하지 못 했기에 기억과 잊혀짐의 정치가 상호 충돌하는 상황들을 반복하고 있다.

기억과 잊혀짐의 정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이라기보다는 경합적인 양상을 보이며, 복잡한 시공간적인 맥락 속에서 기억에 대한 선정 기준의 설정, 기억을 부각시키는 방식, 특정 기억의 (비)의도적 삭제와 복원 등에 따라 변화한다.⁴⁵⁾ 즉, 기억과 잊혀짐은 역사라는 한 몸을 가졌지만, 끊임없이 경쟁하며 선택되고 버려지기를 되풀이한다. 따라서 기억과 잊혀짐의 정치로 구성되는 로컬리티는 매끈한 마감을 가진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누더기처럼 조각나고 부분적인 단면들로 덧붙여지고 찢겨진 유동체이다. 이러한 모습은 기억의 ‘배제’와 ‘포섭’의 행위들이 서로 복잡하게 섞이는 일종의 정치적인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며, 기억과 망각이 언제든지 자리를 뒤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43) Sibley, D. *Geographies of exclusion: Society and difference in the West*. 1995, Psychology Press.

44) Cohen, S. J. "Organized Forgetting: Elites with No History," in *Politics without a Past*, 1999, Duke University Press.

45) 전중환,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 종로 피맛골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권 6호, 2009.

한편 망각은 종종 갈등, 배제, 회피, 상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감각을 수반하며, 경계화된 '타자'들과 불평등한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⁴⁶⁾ 페르난데스(Fernandes)⁴⁷⁾는 경제 자유화 정책 시행 시기에 등장한 인도의 새로운 중산층이 그들의 소비 관행과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동자 집단을 지우는 작업을 단행하는 장면에 주목하였다. 대규모의 슬럼가가 철거되는 과정 속에서, 잊혀짐의 정치는 소외된 특정 사회 집단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정치적이면서도 모호한 것이었으며,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공간적 재구성을 통해 계급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미군 기지촌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다루어졌고, 미군 위안부를 둘러싼 수많은 사건들도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치부되었다. 이처럼 잊혀짐의 정치는 갈등과 논쟁을 수반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적 구성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여러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동맹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미군 위안부의 삶과 그들이 존재했던 기지촌의 로컬리티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개인과 집단, 국가의 기억이 경합하며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내듯이, 기억과 잊혀짐은 공간 안팎에 쌓이며 새로운 로컬리티를 형성한다.⁴⁸⁾ (비)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이 부여하는 이름과 해석들, 지역의 내, 외부에서 상상하는 공간적 속성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총체로서 로컬리티는 기억과 망각을 동력삼아 진화한다. 그러나 로컬리티의 측면에서 과거의 기지촌은 미군과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군사적 공간에

46) Lee, Y. S., and Yeoh, B. S. (Eds.). *Globalisation and the Politics of Forgetting*. 2006, Psychology Press.

47) Fernandes, L. "The politics of forgetting: Class politics, state power and the restructuring of urban space in India," *Urban studies*, Vol.41, No.12, 2004.

48) 오미일·배윤기, 「한국 개항장도시의 기념사업과 기억의 정치-인천의 집단기억과 장소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3권, 2009.

매몰되어 있다. 또한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음과 기억되기를 거부당한 역사 속에서 기지촌의 로컬리티는 부재한 것처럼 여겨진다. 미군 위안부에 대한 적절한 회상과 재현 없이, 과거에 정체되어 현재의 로컬리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작업은 미군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받아들일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억과 인정, 재현의 문제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형성, 구조화되기에, 잊혀짐의 정치 안에 갇힌 미군 위안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회상의 방식이 필요하다.⁴⁹⁾ 그렇다면 미군 위안부에 대한 기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그들이 머무르고 존재했던 기지촌의 공간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용주골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여전히 미군 위안부의 삶이 녹록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녀들의 삶이 가장 진하게 녹아있는 클럽과 숙소, 일상과 욕망이 뒤섞여 있는 골목과 목욕탕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용주골의 공간과 잊혀진 사람들: 통제의 공간 클럽과 숙소

영화 속에서 재현되는 기지촌의 거리는 화려한 불빛과 미군을 기다리는 위안부 여성들, 무리지어 클럽을 기웃거리는 미군들의 모습들이다. 기지촌은 낮보다 밤이 중요했던 공간이었으며, 색색의 조명 아래 감추어진 어둠 뒤에 기지촌 주민들의 일상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곳이었다. 기지촌을 구성하는 업종들은 미군의 유흥과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로 강수

49) Legg, S. "Reviewing geographies of memory/forgett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39, No.2, 2007.

영⁵⁰⁾에 따르면, 식료/잡화점을 제외하고 양품점, 양복점, 클럽, 선술집 등이 전체 상점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내면 연풍리에서 큰 고을이 되어버린 용주골은 밭고랑 위에 갑자기 생겨난 양공주촌이요...문산 주변에 산재하던 촌락이 발전한 것도 모두 이런 까닭이다...용주골에는 미군 상대의 '댄스홀'이라고 할 클럽이 삼십여개 다방이 이십여개 양공주가 일천여명이고 나머지는 이들을 상대로 가게를 벌린 장사꾼들로 메워져 있다.⁵¹⁾

특히 클럽은 기지촌 경제의 중심이었기에 크고 작은 홀들이 용주골 일대에 포진해있었다. 현지조사에서 밝혀진 클럽들은 뉴서울클럽, 로맨스클럽, 캘리포니아클럽, 자이언트클럽, 흥학클럽 뿐이지만 클럽 자리였다고 전해지는 자리는 이것 외에도 10여 군데 이상이 넘었다. 기지촌에서 클럽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미군이 여기저기 장소를 물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클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럽들은 파주읍과 RC(Recreation Center) #1을 연결하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으며 RC#1 문을 나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클럽도 있었다.

클럽의 구조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출수 있는 무대가 포함되어 있는 일명 홀과 위안부 여성이 성매매를 했던 숙소로 구성되어 있다. 홀의 규모는 클럽마다 달랐지만 천장이 높고 다른 시설물들이 없는 넓은 공간이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미군과 위안부 여성이 홀에서 춤을 출 때 다른 커플과 부딪히지 않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안된 것이었으며, 건물의 높이 역시 동양인에 비해 큰 미군의 키에 맞춘 것이었다.

50) 강수영 외, 2020, 앞의 글.

51) 요즘의 내 고향 下, 조선일보 1961년 10월 12월 기사.



〈그림 1〉 1960년대 용주골의 클럽 분포

홀 한 칸에는 술을 나눠주는 바와 이를 마실 수 있도록 배치된 탁자와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위안부들의 춤을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의 무대가 있는 곳도 있었다. 홀은 번쩍이는 조명 이외에도 국적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다. 홀의 벽에는 육감적인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그림 혹은 사진들이 붙여져 있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조형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파주 일대의 극장 간판을 그리고 관련 일들을 업으로 삼았던 A씨는 클럽 소유주들이 미군을 유인하기 위해 클럽 입구부터 건물 안쪽까지 여성의 나체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증언한다. 뿐만 아니라 서양 화가의 그림 중에서 클럽 소유주들이 선호하는 그림이 있으면 그대로 베껴 그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건물 내부의 장식품과 그림들은 고향의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내재된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클럽은 미군의 피부색갈에 따라 나뉘어져 운영되어 있었다. 노골적인 인

종차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공간의 구획을 통해 백인과 흑인의 경계가 만들어졌다. 클럽의 외관에서도 차이가 존재했다. 백인 군인들이 다니던 클럽들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화려한 간판과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었다면, 흑인 병사들만 출입하였다는 클럽들은 중심 거리에 위치해 있지 않고 민가와 뒤섞여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이다.⁵²⁾ 흑인 클럽의 규모 역시 백인 출입 클럽보다 크지 않았으며 작은 홀 주변에 위안부 여성들의 숙소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인터뷰 B).



〈그림 2〉 미군 클럽의 형태를 보여주는 클럽 내부

클럽에서의 흑백간의 다툼은 일상적인 것이었다. 클럽은 미군 병사 간의 인종 간의 차별뿐만 아니라 한국군이나 한국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

52) 강수영 외, 2020, 앞의 글.

기 때문에, '클럽'은 미군이 가진 권력의 상징이자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치외법권의 구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세븐클럽과 러키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미0사
단 00연대 테일러 일병 등 흑인군인 10명과 포인너린 일병 등 백인 군
인 4명이 편싸움을 벌여 몽둥이 등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⁵³⁾

클럽과 연결된 숙소들은 홀과 연결된 출입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구
조였다. 이 출입문을 통제하는 포주는 위안부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
있었다. 좁은 문을 지나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방들이 수십 개가 있었으며,
홀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일어서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천장도 높았다.
용주골에서는 좁은 공간에 수많은 구획을 나눠 만들어진 방들을 별집(별
방)이라고 불렀다. 일벌들이 별집에 끊임없이 오고가며 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위안부 여성들이 미군과 함께 그 좁은 방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돈
을 벌었던 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림 3〉 별방 숙소로 올라가는 계단

53) 흑백편싸움, 경향신문, 1969년 1월 7일 기사.

과거 진주 클럽이었다가 현재는 은행으로 바뀐 자리에 위안부 숙소가 치워지지 않은 상태로 버려져 있다.⁵⁴⁾ 세월이 지나 클럽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만 숙소로 가는 외진 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숙소로 가는 문은 클럽 뒷문과 연결되어 있으며 숙소 뒤편은 가로막혀 있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계단에 올라 녹슨 문을 여니 그곳에 별방들이 있었다. 별방은 긴 복도를 중앙에 두고 양편에 길게 들어서 있는 형태였으며, 방과 방 사이는 얇은 판자로 벽을 맞대고 있다.

해당 건물은 클럽이었던 1층 위에 2,3층이 없어진 형태로 당시 단층 주택이 우세했던 한국의 주거양식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해방 직후에도 남아있었던 서구의 근대적인 주택 형태를 차용한 일본식 가옥과도 달랐는데⁵⁵⁾, 각 층마다 사용한 건축 재료가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무계획적, 임시적-의 건축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복도를 두고 나란히 배열되는 있는 방

54) 은행관계자는 보관기한이 오래된 문서를 두는 장소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이 훼손되지 않고 잘 남아 있었다.

55) 김상희, 「군산 구도심 근대주거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예를 들어, 미군을 통한 건축 재료의 수입과 민간원조를 통해 만들어진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의 건축 양식이 일제시대의 유산들을 지워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⁵⁶⁾ 클럽과 숙소의 건물 내부에 사용된 시멘트, 목재의 종류를 보았을 때,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재와 시멘트 등의 건축 재료가 사용되었으며 이후 보수와 갱신으로 인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위안부 숙소로 RC #1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파주읍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그 규모가 컸던 연풍장이 있다. 많은 위안부들을 수용하기 위해 2층 이상의 구조로 지어졌던 다른 숙소들과는 달리 단층 형태로 넓게 펼쳐져 있다. 연풍장의 숙소들은 벌들처럼 방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구조로 확장되어왔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사다리꼴 모양의 홀의 두 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숙소는 또 다른 사각형을 만들며 기이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모양새가 된 것은 애초에 숙소를 확장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용주골 대부분의 주택이 불법 가건물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클럽의 위안부 숙소 역시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대처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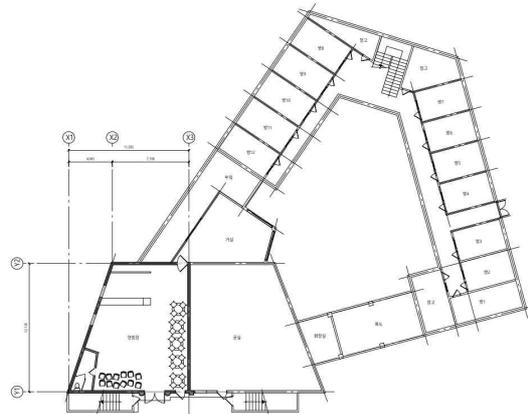
포주들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방을 쪼개고 늘리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들은 하꼬방(판자집)이라고 불렀는데, 광복후, 월남가족들의 임시 거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점령군이 가지고 들어온 나왕 목재, 미송 등의 목재 조각과 루핑, 깡통 등을 이용하여 바라크집(Block 집)을 지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⁵⁷⁾.

토지 내부를 채우지 않는 증정형태는 숙소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출입문이 모두 증정 쪽으로 열리는 것도 위안부 여성의 출입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동선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진주클

56) 안창모, 「서구건축문화의 이식통로-원조프로그램과 한국건축계 재편」, 『Korean Architects』 7권, 2006.

57) 김란기·윤도근, 「일제의 주거유산과 미군정기 주택사정 고찰 (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권 6호, 1987.

클럽의 숙소와 마찬가지로 단일 출입구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형태의 공간 배치라는 점에서 위안부에 대한 통제 양식으로서 건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연풍장의 홀과 숙소 평면도

두 클럽의 숙소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창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위안부 숙소에는 창문이 있다. 창문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미군의 선호에 의한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위안부 여성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빛을 지거나 이 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은 창문을 통한 이탈을 시도하곤 하였다. (인터뷰 C)

출입구를 통한 이동이 쉽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서 창문이 이용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창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며 손이 통과할 수 없도록 창살의 간격이 매우 좁았다. 그러한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위안부 숙소로 사용했던 공간이라면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클럽을 중심으로 한 기지촌의 공간들은 작은 창문마저 위안부의 신체를 강제하는 커다란 제약의 기계로서 만들어져 있었다.

정리하자면, 클럽과 위안부 숙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이러한 공간들이 돈벌이를 위한 단순한 장치가 아니었다는 점, 둘째, 미군 위안부들을 효과적으로 숙박하기 위한 감시의 도구로서 기능하였다는 점, 셋째, 미군이라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간의 치장, 구조, 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지촌의 로컬리티는 미군과 위안부들을 둘러싼 달러의 경제가 가장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구조화가 이루어졌으며, 그것에 부합할 수 있는 공간의 생산을 통해 마을 전체가 부를 누렸다.

4. 용주골의 거리와 시간의 혼재: 일상과 욕망이 뒤섞인 공간

위안부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공간으로서, 클럽과 숙소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들을 둘러싼 일상의 공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용주골이 온통 성매매와 환락에 뒤엉켜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바깥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삶이 존재했다. 용주골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연풍시장’은 마을 주민들의 일상과 욕망이 뒤섞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연풍시장은 성가, 조가, 윤가 등 집성촌으로 구성된 작은 마을의 상권으로 시작되어⁵⁸⁾ 미군 주둔 이후 이 지역의 핵심적인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1953년 파주읍에 주한미군 2사단이 입성하고 3년 뒤 해당 지역 동편에 미군 휴양시설 (Recreation Center 1, 그림 1 참조)이 세워지면서 연풍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연풍시장 일대에 위치한 상점들은 px물건을 파는 상회에서부터 미용실, 사진관, 양복점 등 미군과 위안부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군 물품을 사고자 하는 기지촌 외부의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

58) 강수영 외, 2020, 앞의 글.

키기 위한 소비의 통로로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의 말에 따르면, 기지촌 경제가 활발했을 때는 px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곳은 비단 상회뿐만이 아니었으며, 물품에 따라 은밀하게 거래되기도 하고, 특정한 모임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있었다고 진술한다(인터뷰 D).



〈그림 6〉 1960년대의 연풍시장(출처미상)

연풍시장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마을 사람들, 특히 위안부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에 있었다. 마을 중심부이자 버스가 정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위안부의 탈출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인터뷰 E). 포주가 고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시로 연풍시장 주변을 돌면서 치안을 명목으로 위안부들을 감시하였다. 포주들로부터 빚을 지고 그것을 탕감하기 위해 몸을 팔았던 위안부들은 포주에게 있어 돈줄과 같은 것이었으므로, 감시와 경계는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경찰의 부재 시 그들을 대리하는 비공식적 경비원들은 기지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소식통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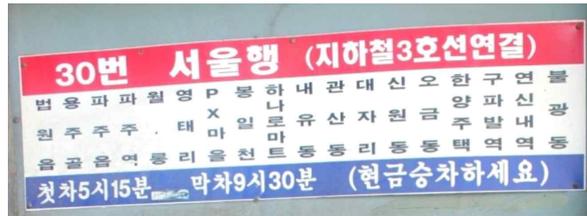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 자들로 연풍시장과 마을 초입에서 물건을 들고 나르던 리어커꾼을 들 수 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용주골에 입성하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마을 내부에서 이사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리어커꾼들은 연풍시장 앞을 지키며 주민들의 집을 옮겨 돈을 벌었다. 이들은 단지 물건을 옮겨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 위안부들이 어디로, 왜 이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면서 감시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긴밀한 감시망은 미군 위안부를 둘러싼 국가와 미군 혹은 남성, 지역민의 욕망과 공모 등이 일상 속에 녹아있었음을 의미한다. 기지촌의 (비) 공식적 동맹 관계는 강압과 폭력적인 방식보다는 은밀한 내재화 전략을 통해 구축되었다.⁵⁹⁾ 미군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와 자본가, 친선협회 등뿐만 아니라 용주골의 주민 모두에게 미군 위안부는 생존을 위해 곁에 붙잡아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존재였다.⁶⁰⁾ 따라서 그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기지촌에서는 중요한 정보였으며, 이러한 정보 수집과 공유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눈과 입이 동원되었다.

한편 연풍시장은 서울과 파주를 연결하는 버스가 정차하는 유일한 곳이었다. 교통수단이 많지 않았던 당시에, 서울 연신내와 용주골을 오고 가는 버스는 서울에서 들어오거나 하는 이들을 불러들이는 수단이자, 용주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들의 소망을 이뤄주는 것이었다. 용주골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 서울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첫 이동지가 연신내였다고 전해진다(인터뷰 F).

59) Moon, K. H.,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1997, Columbia University Press.; Hohn, M., & Moon, S. (Eds.). *Over there: Living with the US military empire from World War Two to the present*. 2010, Duke University Press.

60) 백일순, 「성장 연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와 이데올로기의 조응」, 『문화역사지리』 32권, 2020.



〈그림 7〉 서울과 용주골을 연결해주던 버스의 노선

많은 부모들이 용주골에서의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거나 자녀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잦아지면서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빈번하였다. 이처럼 연풍시장은 미군으로부터 나오는 물품을 사고자 하는 전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만물장터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내부의 정보와 사람들의 들고나감을 확인할 수 있는 광장으로써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풍시장은 용주골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자 끝나는 지점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일상의 공간으로 목욕탕을 들 수 있다. 위안부들이 기거하였던 하꼬방 형태의 주택들은 적절한 배수시설을 만들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위안부들의 목욕탕 방문은 중요한 것이었다. 정배수 시설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용주골과 같은 작은 마을에 목욕탕이 3개 이상 있었다는 점은 기지촌의 공간 구성에서 특이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 파주에는 기지촌을 중심으로 임진면 3곳, 주내면 4곳, 천현면 4곳, 파평면 2곳, 아동면 1곳, 적성 1곳에 목욕탕이 있었다(인터뷰 G).

1960년대의 목욕탕이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치된 근대시설이었다는 점과는 달리,⁶¹⁾ 기지촌의 목욕탕은 미군 위안부들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1960년대의 목욕비는 대략 30~50원 사이⁶²⁾였는데, 당시의

61) 권예슬, 「도시화와 서울 목욕문화의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한운희, 「마을 공동체 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목욕탕 공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62) 100년을 엿보다, 목욕탕, 경향신문 2010년 2월 11일 기사.

짜장면의 값이 15원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일같이 이루어졌던 목욕이라는 행위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사치행위에 속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목욕은 미군 위안부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행위였으며,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지촌에서 목욕탕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며, 기지촌이 형성되면 미장원, 양장점, 사진관, 가구점 등과 함께 반드시 등장하는 업종이었다.

위안부 여성에게 있어 목욕이라는 행위는 육체를 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매일 미군을 받아야만 했던 여성들은 서구인 특유의 냄새들을 견딜 수 없어 했고 클럽이 시작하기 전 삼삼오오 모여 목욕탕에 가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다. 목욕탕은 포주로부터 잠시 동안이라도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일종의 도피처이기도 했다. 목욕탕에서 만난 위안부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보를 나누기도 하였다. 누군가에게 편지나 물건을 전하기 위해서 그녀들은 목욕탕을 이용했다(인터뷰 C).

기지촌의 목욕탕은 젠더적인 공간이자 계급화된 공간이었다.⁶³⁾ 마을 사람들이 이른 아침 목욕탕을 방문한 것과는 달리, 미군 위안부들은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탓에 점심이 지나서야 목욕탕을 찾았다. 위안부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혹은 위안부로 오해받기 싫어 위안부들이 주로 다니는 시간을 피했다고 한다(인터뷰 E). 미제 화장품으로 걸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한 미군 위안부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돈이 나오는 구멍일 뿐, 사람으로서 동네 주민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암묵적인 배제와 괘시들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국내 목욕탕의 구조는 일제시기에 도입된 센토(錢湯)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⁶⁴⁾ 출입구를 기준으로 남녀가 분리되

63) 유장근, 식민지 위생시설에서 다기능의 생활공간으로-마산지역 목욕탕의 1 백년 역사, 『가라문화』 27권, 2015.

껴지는 이유는 여탕 우측에 사우나실로 추측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운영하였던 이곳은 고객 유치를 위해 여탕 일부 공간을 개조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우나 시설이 원래의 탕의 면적이라고 한다면 남탕, 여탕의 크기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여탕의 공간이 작게 설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간 면적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욕탕을 이용한 여성들에 대한 그 시대의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녹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위안부 여성들이 목욕탕의 주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좁게 만듦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빠르게 순환시켜 높은 이윤을 취하려는 전략이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소지품을 보관하는 사물함의 수가 남탕에는 30개, 여탕에는 72개가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면적에 비해 많은 수의 여성 고객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⁵⁾.



〈그림 9〉 중앙 목욕탕의 출입구 전경

65) “그때 목욕탕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해방구”, 파주바른신문 2020년 8월 12일 기사.

이처럼 시장과 목욕탕의 공간 분석을 통해 기지촌의 공간은 미군 위안부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그들의 일상과 다른 이와의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지촌의 로컬리티는 물건을 사고 목욕하는 일상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구조화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은밀하지만 노골적인 착취와 배제의 논리가 투영된 기지촌의 공간은 한 번 들어오면 빠져 나갈 수 없는 덫과 같은 장치였던 것이다.

5. 잊혀지는 것들을 제대로 기억하기

본 연구는 기억의 정치가 인정과 재현의 정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구체화되는 과정을 기지촌의 공간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클럽과 숙소, 시장과 목욕탕이라는 공간을 통해 미군 위안부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들이 공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지촌의 로컬리티가 국가와 미군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이해되지만 기지촌의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마을 주민 모두가 기지촌이 가진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감시와 통제에 참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군을 어르고 위안부를 감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부의 보장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공간의 형성이나 배치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버려져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클럽과 숙소, 목욕탕 등의 흔적들은 이 지역만이 가진 특유의 로컬리티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지촌의 로컬리티 내부에는 아직 공론화되지 못한 기억의 정치가 남아 있으며, 미군 위안부에 대한 인정과 재현의 정치 역시 기지촌 여성 지원 센터 등을 중심으로 제한된 영역 속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다소 희망적인 것은 미군 위안부에 대한 기억을 새로이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면서 기억의 정치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8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파주의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는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⁶⁶⁾ 한국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민간인 학살터를 비롯해 3.1운동이 이루어졌던 교하초등학교 등을 둘러보는 것이 계획되었다. 무엇보다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미군 기지촌의 탐방이 연풍리와 장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제까지 집착촌으로만 생각했던 이곳이 미군정 시기의 가장 역동적인 역사를 담고 있었던 곳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전해진다(인터뷰 1).

행사 이후에 여러 이유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 하였지만, 단 한 번의 시도가 가져온 변화는 상당한 것이었다. 미군 기지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아졌고 시의원을 통해 정책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자체 최초로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미래 유산으로서 기지촌을 보존하고 접근 가능한 곳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기지촌 여성이 법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기억하고자 했던 다양한 실천들이었다.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미군 위안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기억의 정치가 작동하게 되었고 시민단체와 지자체를 통해 인정의 정치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아직 기지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 '소녀상'과 같은 형태로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66) 6·25전쟁, 미군 기지촌 여성 삶의 현장 등 다크투어리즘 파주올레 3선 관심, 경기일보 2018년 4월 1일 기사.

잊혀짐의 정치로 인해 양공주들은 아무도 기억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며 기지촌 역시 그렇게 잊혀지고 있다. 미군 위안부에 대한 잊혀짐의 정치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기억의 정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재현의 정치를 통하여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지촌에 대한 충분한 합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관광지화나 과도한 역사적 의미 부여는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거나 동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미군 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해 그들에게 부여된 불필요한 감정들을 제대로 잊고 그들의 삶을 정확히 복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군 위안부에 대한 개인과 집단이 같은 역사를 다르게 이해하는 방식 역시 보다 포용적인 관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억이 재구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빈틈을 메워주고 새로운 기억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접근이 될 것이다. 기억의 정치를 수행한다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는 기억들을 호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불필요한 감정과 부정확한 사실들을 망각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⁶⁷⁾ 역설적으로 과거를 제대로 잊는 것은 공간에 내에 새겨진 여러 궤적과 행위에 대한 기억, 관행들을 새로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⁶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국가 중심으로 해석되어 온 기지촌을 공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 폭력의 도구로서 마을의 건물과 공간이 작동했음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러한 분석을 통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국가의 폭력만큼이나 기지촌을 둘러싼 모든 행위자들이 은밀한 방식으로 미군

67) Papadakis, Y. "The politics of memory and forgetting in Cyprus," *Journal of Mediterranean Studies*, Vol.3, No.1, 1993.

68) Colombino, A., Vanolo, A. "Turin and Lingotto: resilience, forgetting and the reinvention of place,"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25, No.1, 2017.

위안부에 대한 억압과 감시에 가담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와 동일선상에 두고 관련 논의를 주장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의 기억 방식이 이 두 집단의 경우에 극명하게 차이 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의 방식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언급해두고 싶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로서 실측 대상지의 소유주,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 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용주골에 있는 건축물들의 주인들은 대부분 외지인이거나 소유주의 자녀들이어서 해당 건물에 대한 역사와 배경을 알지 못 했다. 마을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을 통해 이야기들을 보완하였지만, 여전히 메우지 못 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미군 위안부의 목소리를 직접 담지 못하였기에 용주골의 공간을 완전히 복원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기억은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교훈과 조언이 전달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⁶⁹⁾ 기억한다는 것의 힘을 정확히 받아들일 때, 기억되지 못한 이들의 역사도 함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잊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기억을 제대로 형성하고 가치를 부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억한다는 것은 완전한 보존과 전체에 대한 회상이 아닌 기억에 대한 정직한 해석과 적절한 가치치기를 통한 적극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69) Ramos, A. M. "The good memory of this land": Reflections on the processes of memory and forgetting," *Memory Studies*, Vol.3, No.1, 2010.

| 참고문헌 |

- 강수영·백일순·이승욱, 「미군 기지촌, 용주골의 역사적 변화: 사회경제적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5권 2호, 2020.
- 구난희, 「캐나다의 어두운 과거사 기억하기-인디안 기숙학교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54권, 2020.
- 권예슬, 「도시화와 서울 목욕문화의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권은선, 「증언, 트라우마, 서사-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의 일본군 '위안부' 영화」, 『아시아영화연구』 12권 2호, 2019.
- 김란기·윤도근, 「일제의 주거유산과 미군정기 주택사정 고찰 (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권 6호, 1987.
- 김미덕, 「미군 캠프타운 한국 여성에 대한 한 민족지적 연구: 일과 정체성」, 『아태연구』 21권 3호, 2014.
- 김대범, 「구술로 본 강원도 원주의 도시지역- 군사문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82권, 2020.
- 김명희,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시인(recognition)의 정치: 한국의 사회적 기억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4권 3호, 2018.
- 김상희, 「군산 구도심 근대주거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연자,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
- 김윤지, 「도구화된 타자, 기지촌 여성과 한국영화-한국전쟁 이후 기지촌 여성을 다룬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교육연구』 15권, 2013.
-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권 2호, 2006.
- 김은선, 「대중목욕시설공간의 시대적 특징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김정자, 새움터,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미군위안부 기지촌여성의 최초의 증언록)」, 한울아카데미, 2013.
- 김주희,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가부장성을 넘어서는 방법: 다큐멘터리 <레드마리아 2>의 탈정치성 비판」, 『여성학논집』 34권 2호, 2017.
- 김희식·손일란, 「대전 매춘공간의 형성과 변화」, 『역사와경계』 93권, 2014.
- 김희식·이인휘·장용혁, 「송탄 기지촌의 공간변화: 1952-2018년」, 『역사와경계』 109권, 2018.
- 백일순, 「성장 연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와 이데올로기의 조응」, 『문화역사지리』

- 32권, 2020.
- 서승희,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과 재현의 정치-소설 [날아라 금빛 날개를 타고]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2권, 2016.
- 송진원·안병학,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나타난 시각 문화의 상징성과 사회적 기억의 확산」, 『기초조형학연구』 20권 5호, 2019.
- 신진숙, 「탄광서사를 통해 본 산업 폐허와 기억의 정치」, 『문화역사지리』 30권, 2018.
- 안창모, 「서구건축문화의 이식통로 - 원조프로그램과 한국건축계 재편」, 『Korean Architects』 7권, 2006.
- 유장근, 「식민지 위생시설에서 다기능의 생활공간으로 - 마산지역 목욕탕의 1백년 역사」, 『가라문화』 27권, 2015.
- 유혜진·천혜정, 「서울올림픽기념관이 재현하는 서울올림픽 공식기억」, 『사회과학연구논총』 30권 1호, 2014.
- 윤지환,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형성된 위안부 기억의 경관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4권 1호, 2019.
- 윤충로, 「관주도 기념의 정치와 새마을운동기념관 -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26권, 2020.
- 오미일·배윤기, 「한국 개항장도시의 기념사업과 기억의 정치-인천의 집단기억과 장소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3권, 2009.
- 오유석, 「동대문 밖 유곽-청량리 588' 공간 구성의 역사와 변화」, 『서울학연구』 36권, 2009.
- 오창은, 「1970년대 초 한국소설의 미군기지(촌) 재현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권, 2019.
- 이나영,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성별화된 민족주의, 재현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24권 3호, 2008.
- _____, 「글/로컬 젠더질서와 한반도 여성의 몸: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양공주」, 『동방학지』 161권, 2013.
- _____, 「일본군위안부운동 다시 보기 - 문화적 트라우마 극복과 공감된 청중의 확산」, 『사회와 역사』 115권, 2017.
- 이상환, 「인정의 정치와 사회 정의」, 『철학연구』 107권, 2008.
- 이평진, 「1970년대 소설의 '생체정치'와 '재생산된' 신체 연구」, 『어문학』 140권, 2018.
- 이현재, 「성노동자들의 인정투쟁과 윤리적 지평의 확장: 민주성노동자연대의 거주생 존권/노동권 주장에 대한 인정 이론적 담론화」, 『한국여성학』 25권 2호, 2009.
- 장세룡, 「로컬 기억과 기억의 정치-폴란드 에드바르네 유대인 학살 기억의 사례」, 『대구사학』 98권, 2010.

- 전중환,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 종로 피맛골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권 6호, 2009.
- 정민아, 「미군 기지촌을 다루는 독립 다큐멘터리의 담론 변화」, 『인문사회 21』 11권 4호, 2020.
- 정재림, 「1950-60년대 소설의 '양공주-누이' 표상과 오염의 상상력」, 『비평문학』 46권, 2012.
- 정충실, 「춘천, 기지촌: 1960, 70년대 캠페이지와의 관계 속에 형성된 주민의 삶과 문화」, 『한국학연구』 68권, 2019.
- 차미령, 「여성 서사 속 기지(촌) 성매매 여성의 기억과 재현: 강신재·박완서·강석경 소설과 김정자 증언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8권, 2019.
- 태혜숙, 「한국인 군위안부 기억의 '역사화'를 위하여」, 『문화과학』 40권, 2004.
- 한성훈, 「기념물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집단 정체성 - 거창사건의 위령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8권, 2008.
- 한운희, 「마을 공동체 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목욕탕 공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한지은, 「탈식민주의 도시 상하이에서 장소기억의 경합」, 『문화역사지리』 20권, 2008.
- 황영주, 「파편화된 기억과 완충지대로서의 식민지화 된 여성의 몸: 미군기지의 양공주 다시보기」, 『비교한국학』 5권, 1999.
- Colombino, A., Vanolo, A. "Turin and Lingotto: resilience, forgetting and the reinvention of place."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25, No.1, 2017.
- De Jorio, R. "Politics of remembering and forgetting: the struggle over colonial monuments in Mali," *Africa Today*, 2006.
- Erl, A. *Memory in culture*, Palgrave Macmillan, 2011.
- Espósito, E. "Social forgetting: A systems-theory approach", in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2008, pp.181-190.
- Fernandes, L. "The politics of forgetting: Class politics, state power and the restructuring of urban space in India," *Urban studies*, Vol.41, No.12, 2004.
- Gensburger, S. "Halbwachs' studies in collective memory: A founding text for contemporary 'memory studies'?" *Journal of Classical Sociology*, Vol.16 No.4, 2016.
- Hohn, M., & Moon, S. (Eds.). *Over there: Living with the US military empire from World War Two to the present*, 2010, Duke University Press.

- Meyer, E. "Memory and politics". in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2008. pp.173-180.
- Moon, K. H.,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1997, Columbia University Press.
- Nagar, R., Lawson, V., McDowell, L., and Hanson, S. "Locating globalization: feminist (re) readings of the subjects and spaces of globalization". *Economic Geography*, Vol.78, No.3, 2002.
- Nora, P.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Vol.26, 1989.
- Lee, Y. S., and Yeoh, B. S. (Eds.). *Globalisation and the Politics of Forgetting*. 2006, Psychology Press.
- Legg, S. "Reviewing geographies of memory/forgett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39, No.2, 2007.
- Olick, J. K. "'Collective memory': A memoir and prospect." *Memory studies*, Vol.1, No.1, 2008.
- Papadakis, Y. The politics of memory and forgetting in Cyprus. *Journal of Mediterranean Studies*, Vol.3, No.1, 1993.
- Pitcher, M. A. "Forgetting from above and memory from below: Strategies of legitimation and struggle in postsocialist Mozambique." *Africa*, 2006.
- Ramos, A. M. "The good memory of this land": Reflections on the processes of memory and forgetting." *Memory Studies*, Vol.3, No.1, 2010.
- Schwabe, S. "Paradoxes of Erasure: Palestinian Memory and the Politics of Forgetting in Post-Dictatorship Chile." *Interventions*, Vol.20, No.5, 2018.
- Sibley, D. *Geographies of exclusion: Society and difference in the West*. 1995, Psychology Press.

| Abstract |

Why 'U.S. Camptown Prostitutes' had to be forgotten?

- The locality of US camptown and politics of memory

Paek Yilsoon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a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locality of the US troop camptown have influenced the formalization and intentional deletion of the memories of the US military comfort women, as the case of the Paju Yongjugol. The U.S. military and the related actors around comfort women not only performed exploitation and violence through the spatial limitation, but also took a strategy to monitor and control the comfort women in everyday space. The locality of camptown has been fixed into a structure that is not easy to remember, the comfort women of the US military are still forgotten. In order for the politics of memory-recognition-representation to be realized, it is important to forget the unnecessary feelings given to US military comfort women and to accurately recall their lives.

Key Words: US camptown, space of memory,
politics of representation, Younjugol Paju,
U.S. Camptown Prostitutes(Comfort women)

· 논문투고일: 2021년 3월 5일 · 심사완료일: 2021년 4월 21일 · 게재결정일: 2021년 4월 21일